KOFA 제 6대 이종윤 회장 취임

MONTHLY KOFA

코파의 힘

Tel. 021-3002-909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Jl. Imam Bonjol No. 75 Cibodas – Tangerang

Vol. 64
2020/01

KOREA FOOTWEAR ASSOCIATION - INDONESIA - NON

KOFA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11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 열려
10년을 함께 이제 더 멀리
KOFA 제 6대 이종윤 회장 취임

KOFA 제6대 이종윤 회장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이하 KOFA) 2019년 범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와 제 6대 회장 취임식을 지난 27일 땅그랑소재 모던랜드CC에서 전 회원사를 비롯해 재인니한인회 박재한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치러졌다.

KOFA 제 6대 회장에는 SMI 대표 이종윤사장이 선임되어 KOFA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2년간 이끌어 가게 되었고 수석부회장으로는 성담 홍춘식사장이 연임하게 되었고 ACMI 강호성사장이 신규로 그 직을 맡게 되었다.

KOFA는 2009년 초대 송창근회장을 시작으로 3대,4대,5대 신만기회장을 이어 6대에 이르렀고 11년간 인도네시아 한국 신발산업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 그 중심에서 신발인들의 자긍심과 하나되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 경제속에서 KOFA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코파의 힘이라는 협회 소식지를 발행해 우리 회원사를 하나로 뭉치는데 주력해왔다.

이번에 취임한 이종윤회장은 KOFA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상호 상생하고 한국 신발기업의 미래비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외치면서 약 70명 기업들이 모여 출범했고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지하지 않고 항상 살아 숨 쉬는 코파는 더욱 더 탄탄하고 강력한 협회로 회원사 여러분의 권익과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주변의 어려움을 협회에서 함께하고자 루마인다. 헤븐스, 무지개 공부방, 사랑의 전화에 각각 2,000만 루피아의 성금을 했으며 회원사 직원의 장기자랑을 통해 회원사 상호간 한발 더 다가가는 행사로 의미있게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35년 신발인의 은퇴를 하게된 KMK 이상호 사장의 회고를 잠시나마 기리는 시간이 있었으며 이상호 사장은 신발인으로 살아온 평생의 감회를 후배 신발인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자리 또한 만들었다.

2020년 KOFA의 슬로건은 10년을 함께 이제 더 멀리 라는 슬로건으로 창립 11년차를 맞이해 6대 집행부의 또다른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언제나 한인동포사회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온 KOFA의 2020년 행보는 우리 신발산업의 비젼으로 나타 날 것으로 본다.

KOFA 이종윤 제 6대회장 취임사

KOFA 제6대 이종윤 회장

먼저 재인니 범한국신발인의 날 행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내빈여러분들과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6대 회장에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밀어주신 여러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성원과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의 발전과 비젼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신발기업들은 한국신발산업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그 뿌리를 이어온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초기 척박했던 산업환경을 인내와 한국인 특유의 근성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30년이란 시간들을 차곡차곡 다져 지금의 인도네시아 한국신발산업의 영광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왔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재인니한국신발협의회는 지난 2009년 초대 송창근 회장님의 열정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상호 상생하고 한국 신발기업의 미래비젼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외치면서 약 70명 기업들이 모여 출범했습니다.

송창근 회장님의 초대 2대를 거쳐 신만기 3대,4대,5대 회장님의 노력으로 우리 코파는 약 200여 회원사가 만들어졌고 인도네시아내 한국 신발기업은 한국과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코파 출범이후 10년의 시간들은 우리 신발기업의 성장을 넘어 안정속에서 세계를 넘 볼수 있는 기회까지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격동하는 불확실한 세계시장속에서 우리 함께라는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가 그 원동력이되고 힘이 되었다고 봅니다.

회원사 여러분

이제 우리코파는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비젼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지하지 않고 항상 살아 숨 쉬는 코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중부자와로 많은 이전을 하고있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코파는 더욱 더 탄탄하고 강력한 협회로 회원사 여러분의 권익과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2년의 임기기간 코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을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코파의 힘은 30년전에도 10년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신발산업의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족한 제가 코파를 위해 작은 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사]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인도네시아 한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庚子)년 새해를 맞이하여 수마트라 북단에서 파푸아 남단까지 곳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한인 동포사회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웃음이 넘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및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2019년에는 국내외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말에는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동부 칼리만탄 신수도 개발 협력 MOU 서명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타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현대자동차 진출 투자협약이 체결되어 2021년 말부터 연산 25만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장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지난 9월 버스를 타고 5박 6일 동안 자카르타를 출발하여 찌레본, 브레베스, 솔로를 거쳐 수라바야까지 1,000km 를 횡단하는 '뜨꼬 낭 자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바섬 곳곳에 한류를 홍보하는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4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출범한 조코위 대통령의 제 2기 행정부는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0년은 최초의 한인인 장윤원 선생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자카르타에 첫발을 디딘지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에 대사관은 한인회 그리고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의미있는 '한인 이주 100주년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인 이주 100주년 행사'를 계기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한□인니간 "Maju Bersama"의 관계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대사로 부임한 2018년 첫 해 롬복 지진과 빨루 지진을 겪었고 지난 8월에는 자카르타 지진과 자바섬 대정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척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입니다. 대사관은 한인 동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사관에서는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9월부터 안전문자공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포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리 분관이 2020년 후반기 중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발리, 롬복 여행시 좀 더 안전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극 동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영민함과 근면함으로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에 더욱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창범

재무부, 내년 각 지역 중규모 세무서 증설… 세수 확보 노린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내년 각 지역에 1개소 설치되어 있는 중규모 세무서를 2개소로 늘린다.

지난 10일자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경제 상황의 침체 속에서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르요 우또모 세무국장은, 중규모 세무서를 증설함으로써 감시 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규모 세무서는 고액 납세의무자의 대응에 주력하고, 소규모 세무서는 자영업이나 개인 납세자로부터 확실히 징수해 세수 증가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수르요 국장은 또한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는 직원을 많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삭감하는 등 기존 세무서의 직원수를 조정하면서, 증설한 세무서로 사람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자조정청, 민관 협력으로 토지 정보 시스템 개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토지정보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PPP)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2025년 전국의 모든 토지에 토지 증서를 발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 데일리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투자조정청은 사업비로 10조 7,000억 루피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의 토양 정보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및 문서 디지털화 등을 실시한다.

한편, 투자조정청은 지난 17일 국내외 약 50개사가 참가한 의견 교류 행사를 열었다. 투자조정청의 익마르 루크만 국장(투자 계획 담당)은 "정보 기술과 은행, 금융 기관, 컨설팅 등 기업과 업계 단체의 관심이 높다"고 말하며 "(시스템 현대화에) 시민이나 사업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토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라고 덧붙였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최고경영자(CEO)

조 기 조 교 수

기업의 경영자를 중역(重役), 취체역(取締役), 경리(經理; 중국) 등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이사(理事)와 CEO가 익숙해 졌다.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의 머리글자이다. executive는 '실행을 하는 사람'으로 임원이나 장관 정도가 된다. executive order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해석한다. 사실 끔찍하게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execution이다. CEO에서 가운데 글자, E를 바꿈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맡는 임원을 지칭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C, Customer (고객) Communication (소통) · D, Destruction (파괴) Digital Information (디지털 정보) 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 · F, Financial (재무) · G, Green (환경) · H, Human Resource (인적자원) · I, Information (정보) Investment (투자) · IS, Information Security (정보보안) · K, Knowledge (지식) · L, Legal (법률) · M, Marketing (마케팅) · O, Operating (운영) · R, Risk (위기관리) Revenue (수익) · S, Security (안전) · T, Technology (기술) · X,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알파벳의 각 글자를 순서대로 늘어놓고 보니 많기도 하다. 예를 들면 CCO는 최고고객경영자 또는 최고소통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CDO는 최고파괴경영자인데 기업이 점진적 개선으로는 안되고 파괴적 혁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에 과감하게 틀을 깨고 개혁할 사람이다. CGO는 최고환경경영자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해문제와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협약이라는 규제가 중요해져서 생긴 직책이다. 기술을 중시하는 CTO(최고기술경영자)와 기술은 사람의 스킬이라는 CHRO(최고인적자원경영자)는 직원들이 전략적 핵심 분야로 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문화적인 변화를 실천하고 이끄는 일을 한다. 기술의 변화는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CDIO(Chief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r)는 최고다양성 · 포용경영자로 기업문화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가진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자이다. 다양성이란 인종이나 성별, 성격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다양하게 섞인 상태를 말한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용성이다.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조직문화를 바꾸어야 장기적으로 매출과 수익도 늘어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8개국 7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기업의 혁신성이 다른 기업보다 19% 높고 매출도 9%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고객(CCO)이나 소통(CCO)의 중요성, 기업의 혈액과 같은 자금(CFO)의 운용과 조달, 환경문제(CGO), 인적자원(CHRO)의 확보와 계발, 정보(CIO)와 투자(CIO), 정보보안(CISO), 지식(CKO)과 법률(CLO), 마케팅(CMO)과 운영(COO), 위기관리(CRO)와 수익(CRO), 신기술(CTO)과 사용자들의 경험(CXO)을 중시하여 각기 최고경영자 직을 만들고 있다.

이사회는 기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고 주주들이 맡긴 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구이다. 새로이 최고파괴경영자, 최고사용자경험경영자, 최고다양성 · 포용경영자가 있다하니 앞으로 또 무엇이 생길지 궁금하다. 천학비재인 내가 경영을 맡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때 무임소 장관이라고 있었다. 딱히 중책을 맡지는 못하고 후보 선수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최고후보경영자?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그간에 나는 맡은 일을 잘 하였을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 직장에서 부서장으로서 스스로 수탁책임(stewardship)을 평가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분발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일이다.

정부를 기업과 비교하면 대통령과 총리, 장관은 이사들이다. 정부회의(이사회)는 국민(주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국민의 지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잘 하고 있는지? 국가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 모든 국민을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고 아우르는지 묻는다. 이 정부의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은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두루 포용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30점도 안 되는 낙제 정부가 100점짜리 기업에 딴죽 걸고 재갈을 물리는 일은 20세기에나 있었더라하고 말하고 싶다.

조기조(曺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실크로드 인도네시아는 디자인 연구소로써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다록, 북 디자인외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깍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텍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인니 노동 시장, 임금 상승과 노동자 기술 부족에 직면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자의 기술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2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제조업이 많이 진출하는 서부 자바주 까라왕에서는 지난해와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봉제 기업 21개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한 봉제 기업 관계자는 "서부 자바에서 임금이 지난 7년 동안 크게 상승한 반면,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60여개 한국계 섬유 회사가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상승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기업은 서부 자바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임금 상승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동남아 지역 최고 수준의 퇴직금 제도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자의 기술 부족에 관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구직자의 기술 격차가 표면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SMERU 리서치 연구소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에는 문해력과 계산 능력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점의 최종 학력별 실업률은 직업 고등학교 졸업이 8.63%, 고등학교 졸업이 6.78%로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는 제조업과 인프라 정비, 농업 관련 산업 등 우선 분야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의 2배인 1억 1,30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銀, 전산통합으로 인니 지원… 2023년까지 영업망 55개

BK기업은행이 국외 전산 통합시스템을 완료해 IBK인도네시아은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외 전산 통합시스템은 계좌정보와 고객정보, 인터넷뱅킹 등을 표준화했다. 이를 통해 외환업무, 현지 특화 신상품 제공, 영업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영업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인도네시아 넘버원(No.1) SME(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중소기업) 전문은행'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인도네시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류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화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를 'IBK 아시아금융벨트' 구축의 핵

심지역으로 선정했다.

내년 1월에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개발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기존 30개 영업망을 5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국외 통합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 해외지점과 법인에 적용해 성공적인 IBK아시아금융벨트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인포맥스]

10년을 함께! 이제 더 멀리!!!

11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이모저모

인니 노동 보험 법령 개정… 산재나 사망 시 보상 확충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보장기관(BPJS)의 노동재해보장(JKK)과 사망보장(JKM)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JKM의 유족 보상금을 총액 2,400만 루피아에서 4,200만 루피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등 보상의 확충을 도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령 '2015년 제44호'의 개정령 '2019년 제82호'를 11월 29일자로 제정, 12월 2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령은 JKK의 보상 대상에 자택 요양과 치료 과정의 검사를 추가했다. JKK의 청구 기간은 산재 발생 후 2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연장했다.

JKM의 유족 보상금은 일시금 2,000만 루피아(개정 전 1,620만 루피아), 24개월 정기 보상 총액 1,200만 루피아(개정 전 480만 루피아), 장례 비용 1,000만 루피아(개정 전 300만 루피아)로 모두 증액했다.

유족의 취학 보장 대상이 되는 자녀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단계에 따라 장학금을 설정했다.

사업경쟁감독위원회, "올해 M&A 신고 건수는 101건"

KPPU
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 따르면, 2019년의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신고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78건에서 증가했다.

현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101건의 거래 총액은 144조 3,000억 루피아였다.

신고 건수의 내역은 인수가 94건, 흡수·합병이 3건, KPPU에 상담 중이 4건이었다. 국내 기업간 M&A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안건의 국가별 내역은 인도네시아의 70건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10건, 일본 9건, 네덜란드 6건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광업·시추사업이 20건, 은행·금융권 및 전자·정보통신 2개 업종이 각각 16건이었다.

KPPU 관계자는 "KPPU가 지금까지 M&A에 관한 신고가 지연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실시해 온 것이 기업의 보고 의무에 대한 의식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합병·통합, 주식 취득에 관한 시행령 '2010년 제57호'는 M&A 이후의 자산 총액이 2조 5,000억 루피아 이상, 연간 매출 5조 루피아 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M&A 완료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KPP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3일자로 공포한 합병·통합의 신고 절차에 관한 KPPU 규정 '2019년 제3호'에서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것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신고 기한에 늦은 경우는 하루 1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다.

ZERO ISO 8573-1 Class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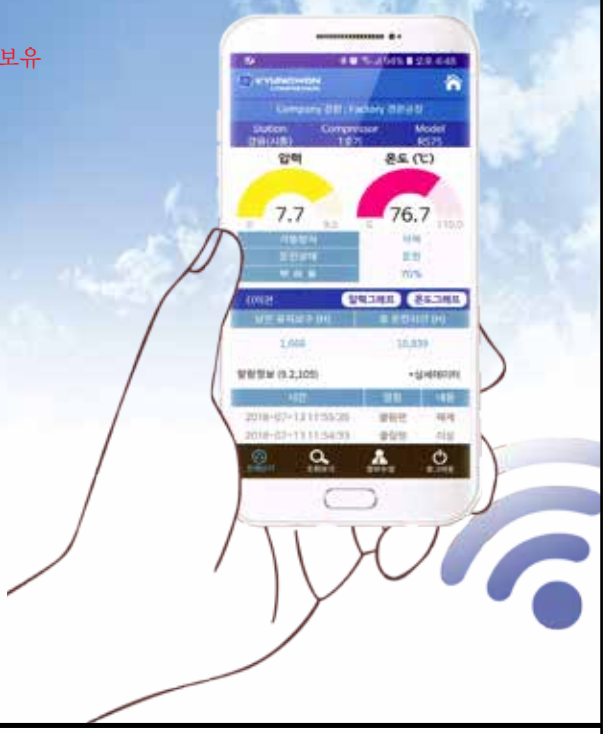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 ISO 8573-1 Class "0" 인증획득!

COAIRE COMPRESSOR
www.ekyungw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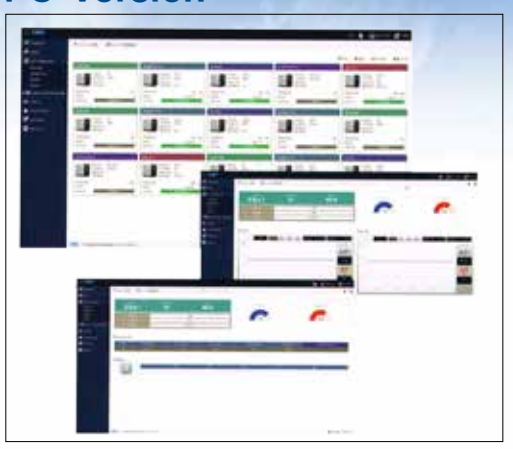
대한민국 콤프레샤의 역사 KYUNGWON COMPRESSOR
경원 콤프레샤

경원 콤프레샤는?
사용이 편리한 다기능 Full MICOM 장착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운전모드
대화가 가능한 운전소음
오일함량 2PPM 이하의 청정한 압축공기
주위온도 50C에서도 안정적 운전가능
경원의 모든제품 AS가능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가능) 및
주요부품, 소모품 상시보유

스마트한
내 손안의 관리시스템– 경원 CMS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해법,
경원 콤프레샤 모니터링 시스템



PC Version



운전상황 Monitoring
1. 최대 15대까지 모니터링
2. 상태 모니터링
   – 공기압력, 토출온도, 운전상태
   – 실시간 온도, 압력 확인
   – 과거 운전 이력 확인
   – 알람 실시간 문자메시지 발송
3. 운전시간
   – 총 운전시간, 남은 유비보수 시간 확인
4. 콤프레샤 관리보고서 출력
   – 가동율, 유지보수 시간, 가동 패턴
   – 에너지 유량 현황, 전년동기 전력, 유량 분석

PT. KYUNGWON CENTURY KORAIR

INDONESIA OFFICE
Jl. Raya Serang KM. 12 Desa Bunder
Cikupa–Tangerang
Telp : 021 5940 2605
김태봉 : +62 811 932 689
E–Mail : kimb160@gmail.com

JEPARA OFFICE
Ruko 1A Suudi RT. 04 RW. 01Desa Kali Pucang Wetan,
Kec. Welahan Jepara Jateng (Depan SMPN 1 Welahan)
Kode Pos 59464
Telp : 0291 751 2682

KOREA OFFICE
102 Dongil–Ro, Kwangjin–Gu
Seoul, Korea
Telp : +82 2 465 6308
Fax : +62 2 468 7202
E–Mail : dbkw2000@hanmail.net
http ://www.dbkw2000.com

임칠우의
손바닥 만한 서양음악 이야기 9,10

11. Anton Bruckner (1824–1896) 74세

'교향곡의 작곡가' 라고 불리는 브르크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교원생활을 하다 그후에 매일 10시간씩 피아노와 오르간을 배워

린쯔 성당의 오르가니스트가 되었다. 시골의 교원이 이 직책을 맡음으로 그의 친족들이 어리둥절 했다고 한다.

그후 그는 바그너 Wagner 의 음악에 감명을 받아 그의 광팬이 된다. 그는 생존시에는 독실하고도 경건한 오르가니스트였고 고전적인 교향곡을

쓰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주로 큰 형식으로 된 교향곡 작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근대 종교 음악의 제일인자 이며 교향곡의 최대의 작곡가 중 한사람 이라는 것도 근래에 와서 인식하게 되었을 정도로 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독일 음악의 3B 를 Bach, Beethoven, Brahms 라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Brahms 대신에 Bruckner 를 넣기도 한다.

추천 감상곡

교향곡 1~9번 (3번 교향곡을 바그너에게 헌정하였다)

12. Piotr Ilyitch Tchaikovsky (1840–1893) 53세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는 기숙학교에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으나 젊어서는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부 관리로 일했다.

그의 생존 시대는 전제정치하의 감정과 의식의 노예화, 창조에 대한 압박, 재능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는 시대였으나 그러한 비극을 그는

작품으로 승화하여 사랑과 희망을 그렸다. 그의 음악은 러시아의 민족성에 입각하면서 독일의 고전파와 낭만파 형식을 받아 들였다.

즉, 그의 선이 굵고 어두운 면은 러시아적이며 세련된 형식과 수법은 서유럽적이라고 평가 된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실패로 돌아간 해입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벨기에 워터루에서 영국 웰링톤 장군에게 참패한 해입니다.

1821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생을 마친 해입니다.

1840년 차이코프스키가 태어납니다.

1880년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의 승전을 기념하는 독립된 서곡을 하나 작곡합니다. 이게 바로 1812년 서곡 입니다

클라식 음악을 듣다 대포 소리가 꽝꽝 나면 십중팔구 이 곡입니다. 러시아로서는 국수(國粹)적인 곡이라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답게 아름다운 발레곡도 3곡 남겼다. 백조의 호수 (Swan Lake), 잠자는 숲속의 미녀 (The Sleeping Beauty),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

1893년 최고의 명작 교향곡 6번 을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고 3주 후에 급사하였다. 후에 그의 죽음과 이 교향곡을 결부시켜 이 교향곡은 비창 (Pathetique) 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는 러시아 음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였고, 어두운 그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주었다.

국민악파에 속하며,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양 작곡가 이다.

추천 감상곡

안단테 칸타빌레, 교향곡 6번 비창, 피아노 협주곡 1번, 바이올린 협주곡 D major, 발레곡 3곡, 1812년 서곡

13. Camille Saint–Saens (1835–1921) 86세

당시 쇠퇴일로에 있던 프랑스 음악의 부흥에 큰 역활을 한 카미유 생상은 어릴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 난 천재였다.

그리고 다재다능한 작곡가였으며 뛰어난 기교를 지닌 피아니스트 겸 오르가니스트 였다.

30세 중반에 유명한 아리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가 나오는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를 작곡하였다.

그의 음악은 고전적인 기법에 기반을 두고 내용에 있어서는 낭만적이라 하겠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미국,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였고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객사.

그의 유해는 파리로 옮겨져 국장 (國葬)으로 엄수 되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 답게....

추천 감상곡

동물의 사육제, 하바네라 (Havanaise),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Introduction & Rondo Capricioso) * 많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음반으로 취입

14. Giacomo Puccini (1858–1924) 66세

베르디 이후 이탈리아가 낳은 훌륭한 오페라 작곡가로 이름을 떨친 푸치니는 어려서는 음악도 학업도 신통치 못 했다.

홀어머니의 열성으로 10대 후반에야 음악성을 발휘했다.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를 보고 오페라 직곡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의 3대 오페라. 라 보엠 (La Boheme), 토스카 (Tosca), 나비부인 (Madame Butterfly) 도 초연 당시에는 성공적인 평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의 작품은 베르디, 바그너의 작품과 함께 세계의 오페라 극장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고 있다.

그의 오페라는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인간미가 풍부하며 음악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 감상곡

아리아 : 그대의 찬손 (라 보엠), 별은 빛나건만 (토스카), 허밍 코러스 (나비부인)

19세기 나폴레옹의 몰락 후 구라파의 각 나라들이 나라의 자주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 시민혁명기 입니다.

고전주의 악파가 인간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표출한 시기라 할수 있다면 낭만주의 악파는 인간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시대이다.

그후 서양 음악의 기류가 북유럽으로 움직이면서 작곡가들의 관심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민요나 설화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이때 생겨난 음악의 풍조가 국민악파 (Nationalist school) 입니다.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Sibelius (핀란디아),

체코의 스메타나 Smetana (나의 조국), 드보르작 Dvorak (신세계로 부터),

노르웨이의 그리그 Grieg (페르 귄트 모음곡) 등이 있습니다.

교향곡 '신세계로 부터' 는 뉴욕 필하모니 관혁악단이 초연했고 2008년 이 악단의 평양공연에서 로린 마젤의 지휘로 연주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장(國葬) 에 자주 연주되는 장송곡이 페르 귄트 모음곡 안에 들어 있는 '오제의 죽음' 이라는 곡 입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도 이 모음곡 안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토벤의 7번 교향곡과 후기 독일 낭만파 작곡가인 Max Bruch (1838~1920) 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좋아합니다.

또 첼로 독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 Kol Nidrei 도 듣기에 좋은 곡입니다. – 히브리 멜로디의 아다지오 라는 부제 (副題).

J. Offenbach (1819~1880) 의 뱃노래 (호프만의 이야기), 천국과 지옥의 서곡 (Overture of Orpheus in the Underworld) – 유명한 캉캉춤 곡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곡. 자크린의 눈물 (Jacqueline's Tears)

Vincenzo Bellini (1801~1835) 의 성악곡 Vaga luna che inargenti (방랑하는 은빛 달빛이여), Casta Diva (정결한 여신) 도 좋습니다.

요즘 티비에 나오는 한화의 기업광고의 배경음악은 러시아/미국 작곡가 라흐마니노프 Rachmaninov (1873–1943) 의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 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분만 소개하고 마치렵니다.

Carl Orff (1895~1982) 87세 현대 독일의 작곡가 (소설가 루이제 린저의 남편). 그가 작곡한 Carmina Burana (카르미나 부라나)

이 곡은 중세시대의 세속적인 시가집이 우연히 발견됨을 계기로 칼 오르프가 이 라틴어 가사로 칸타타로 작곡하였다.

이전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타악기를 많이 사용해 강렬하고 원시적인 리듬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음악양식을 택했다.

첫 곡부터 뿜어 내는 타악기, 심벌즈와 금관악기의 강렬한 연주와 대규모 합창단의 합창은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격한 감동을 안겨 준다.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FAST, ACCURATE SERVICE UP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M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okh@sunstar.co.kr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kevinkang1103@gmail.com

재외국민등록 말소 · 귀국신고 도입…등록기간도 90일 연장

개정 재외국민등록법 25일 부터 시행

재외국민등록제에 말소 및 귀국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재외국민등록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외교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외 공관의 장은 귀국 신고를 했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의 등록을 말소한다.

또 한국에 90일 넘게 거주 · 체류하고자 들어온 사람은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 ·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기간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를 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30일 안에 등록하도록 해 빠듯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외국민등록 사항으로 여권번호, 체류국 최초 입국일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등이 추가됐다. 가능한 경우 이메일과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안내 전 세계로 확대

내년 2월부터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에게 보내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문자 안내가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질병, 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학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재외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19서비스다.

앞으로 세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119로 응급처치 방법 등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82 44 320 0119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 www.119.go.kr 또는 central119ems@korea.kr 로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각종 근무 현장에서 신을 수 있는 작업화를 한자리에!

건설 현장 밖에서도 작업화 혹은 작업 부츠를 신기도 한다. 신발을 하루의 중요한 장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간호사, 셰프, 웨이터, 도시 농부, 정원사, 어부 등 직종에 관계 없이, 작업화 및 작업 부츠 착용자들은 가볍고 내구력이 있으며 보호 기능이 탁월하고 안정적인 풋웨어로 일을 쉽게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다행히도 여러 브랜드에서 이 같은 신발을 판매하고 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주방과 식사 공간을 반복해서 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일부터 카펫, 나무 소재 등 다양한 바닥에서 신고 돌아다녀도 발이 편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신발이 필요하다.

그림의 시계 방향으로 필라의 워크시프트(Workshift)는 메모리폼 밑창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트라크 바이 알레그리아의 바세크(Baseq)는 통기성 있는 어퍼와 탈부착이 가능한 탄력적인 구조가 특징이다. 그리고 트라크 Q칩이 내장돼 있어 블루투스를 통해 걸음을 추적할 수 있다. 스케처스의 엘리트 SR 라이타스(Elite SR Rytas)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끄떡 없는 쿠션감을 제공하는 오버사이즈 미드솔이 특징이다.

교대조로 운영되는 간호사들도 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풋웨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어야 할까?

먼저 미끄럼 방지 기능이 필요하며 발 밑을 튼튼하게 받힐 수 있는 지지력,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의 신발이다. 이 스니커즈들은 시원한 블루 색상을 띠고 있으면서도 세련됐다.

시계 방향으로 필라의 테크니트(Techknit) 스니커즈는 얼룩 방지의 쿨맥스(CoolMax) 어퍼를 사용했으며 더러워져도 쉽게 세척이 가능하다. 프로펫의 니오미(Ny-omi)는 이중으로 미끄럼 방지 속성을 부여했으며 누벅 어퍼에 메탈 프린트를 가미했다. 그리고 바이오닉 프로의 줄리아나(Juliana)는 미끄럼 방지 아웃솔에 초경량 메쉬 어퍼를 사용했다.

각종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내구력이 있는 부츠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수 기능도 있어야 한다.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에코의 록스톤(Roxton) 부츠는 고어텍스 방수 기능과 프리마로프트 단열 기능, 누벅 레더 어퍼를 적용해 실외에서도 내구력이 뛰어나다.

던롭의 스너그부처 파이어니어(Snugboot Pioneer)는 가볍고 통기성이 있으며 방수 속성과 단열 속성이 있는 경량의 퓨로텍스(Purotex)를 사용했다.

머렐의 모압 둘루스 팩 8" 워터프루프 스틸 토 부츠(Moab Du-luth Pack 8" Waterproof Steel Toe boot)는 방수성 가죽 및 캔버스 어퍼와 오일 및 미끄럼, 열 내성인 아웃솔을 사용해 착용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발을 안전하고 건조하게 유지시켜 준다.

실내외를 오가는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작업 부츠의 안전 속성(보호용토 및 마찰력 있는 아웃솔)을 모두 갖춘 작업화를 필요로 한다. 이 때에는 하이커 스타일의 부츠가 적합하다.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킨의 플린트 II 스포츠 부츠(Flint II Sport boot)는 탄소 섬유를 사용해 발가락을 보호했으며 미끄럼을 방지한 아웃솔을 적용한 로우 컷의 운동화 디자인이다. 토로굿의 크로스트렉스 아이메트 2(Cross-trex I-Met2)는 경량의 방수성 하이킹 부츠로써 중족골과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배송 직원 및 창고 근로자는 어디서든 신을 수 있는 풋웨어가 필요하다. 일반 바닥에서부터 자동차, 그리고 배송지 문 앞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쿠션은 필수 조건이며 내구력 있는 어퍼 또한 필요하다. 물건을 들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발 밑 구성이 튼튼해야 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도 필수적이다.

위에서부터 하단으로 트위스티드 X의 추카스타일 WXCC001(chukkastyle WXCC001)은 캐주얼한 디자인에 발가락 보호 기능이 특별하다. 그리고 레드 윙의 제로 G 라이트 6719(Zero-G Lite 6719)는 스니커즈 스타일로써 알루미늄 소재의 토박스와 초경량의 울트라 라이트 솔(Ultra-Light Sole)은 미끄럼 방지 기능과 함께 오일, 가스와 화학물질에 내성이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21st National Assembly Overseas Voti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세계 속의 한국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
Koreans around the world: You are a South Korean voter.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you must apply or register by 15th February 2020.
2020. 2. 15. 까지

신고·신청 방법
Method for Application or Registration

- 인터넷 이용 (ova.nec.go.kr)
  On the internet (ova.nec.go.kr)
- 공관방문 / 순회접수
  Visiting the official government office / mobile booths
- 우편 이용 / 전자우편(e-mail) 이용
  Through post / email

투표기간 | 2020. 4. 1. ~ 4. 6. (기간 중 6일 이내)
Voting Period | 2020. 4. 1. - 4. 6. (Duration of 6 days)

신고·신청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Apply and register quickly and easily on the internet!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참고
Refer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verseas Voting (ok.nec.go.kr) 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websites for details and further information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2016년 국선, 2017년 대선)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명구명부에서 삭제됩니다.
Those who are on the overseas voting list for the previous election may participate in overseas voting without additional registration. However, individuals who have not participated in overseas voting two consecutive times or mor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17 Presidential Election) will be deleted from the permanent lis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 930mm, 35mm
2. 25mm Trimdek — 1040mm, 25mm
3. 35mm Spandek —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조꼬위, 2019년 한해 정치 입지 강화

2019 인도네시아 정치를 상징하는 단어는 선거, 폭동, 학생 시위, 정당의 교묘한 책략 등이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2개월간 정치권에서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꾸준히 권력을 강화해 왔다.

지난 4월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승리한 후 8개월 동안, 조꼬위 대통령은 가장 치열하게 싸운 정적인 쁘라보워 수비얀또 그린드라당 총재를 포용해 협력 관계로 만들었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골까르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다. 또한 군과 경찰의 주요 직책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했고, 미디어 기업들과 유대를 강화했다.

〈상상된 공동체〉의 저자이며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베네딕트 앤더슨은 1972년에 쓴 '자바 문화에서 권력에 대한 생각'이라는 에세이에 "(자바철학에서) 권력자는 반목하는 적에 집중하고 포용하는 것"라고 묘사했다.

조꼬위는 앤더슨의 견해를 기준으로 매우 강력한 통치자임을 증명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와양 케릭터가 까짜(Gatotkaca)가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애니메이션에 자바 격언 '당신이 강할지라도 상대를 쓰러트리지 말아라'(laman sira sekti, aja mateni)라는 자막을 붙여서 지난 7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당시 조꼬위 게시물과 관련해, 가자마다대학교(UGM) 사회학자 아리스 아립 문다얏 교수는 "조꼬위 대통령이 '당신이 강할지라도 상대를 쓰러트리지 말아라'라는 문구를 인용해 함께 하는 정치를 추구함을 드러냈다"라며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만 조꼬위는 야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풀이했다.

이후, 아리스 교수의 견해가 옳은 것으로 판명됐다.

조꼬위 대통령은 10월 취임식 직후 발표한 새 내각에 대선 경쟁자였던 쁘라보워 수비안또를 국방장관에 임명했고,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국회(DPR)에서 반대표를 3분의 1 이상 줄이게 됐다.

조꼬위 1기 임기에는 국회 내 야당이 3개였지만, 2기 임기에는 번영정의당(PKS)만 명확하게 야당으로 남았고, 그린드라당은 여당에 합류했고, 국민각성당(PAN)은 애매모호한 입장이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은 '정부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꼬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연합이 국회 의석의 75%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14년 10월 취임 시 국회 상황과 뚜렷하게 대조된다. 조꼬위

▲ 조꼬위 대통령이 지난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조꼬위 트위터 캡처]

1기 정부 출범 직후 국회는 여당연합에 투쟁민주당(PDIP), 나스담당(NasDam), 국가각성당(PKB), 하누라당 등 4개 정당만 참여했고, 국회 내 의석 비율은 37%에 그쳤다.

조꼬위 대통령 1기 임기 첫 해에 여소야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았다.

조꼬위 정부는 관료주의 개혁과 경제성장 부양을 위해 중복되는 법률과 규제 일원화, 노동법 개정, 법인소득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금 개혁 등에 관한 옴니버스 개정안 3건을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를 동부깔리만딴으로 이전하는 정부의 계획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치전문가들은 조꼬위 대통령은 국회 승인을 못 받는 1기 때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유력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누리 옥타리자는 "조꼬위 대통령이 학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법을 깨우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당인 투쟁민주당(PDIP)과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여당연합을 구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꼬위 대통령은 자신이 속한 집권 여당인 투쟁민주당과(PDIP)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긴장관계이다.

투쟁민주당은 앞서 전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선언했지만, 최근 대통령은 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여당 연합의 수르야 빨로 나스뎀당(NasDam Party) 수리야 빨로 총재는 지난 10월 새 내각 발표 직전 여당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아, 그와 조꼬위 대통령 관계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수르야 총재는 조꼬위 대통령의 정적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를 여러 차례 만났고, 2024년 대선에서 아니스 주지사를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꼬위 연합이 다소 균열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골까르당 총재 경선에서 아이르랑가 하르또노 경제조정장관의 승리는 조꼬위의 승리로 간주된다.

아이르랑가의 승리에 대해 대통령궁의 개입이 있었다는 추측이 부상했지만, 조꼬위와 아이르랑가는 부인했다.

지난 11월 치른 골까르당 경선에서 아이르랑가와 밤방 수사띠오가 총재후보로 경쟁했고, 밤방 후보가 대통령 측근이자 골까르

당 지도자인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과 면담한 후 투표 11시간을 남기고 갑자기 사퇴했다.

정치권 밖을 살펴보면, 조꼬위 대통령은 경찰과 군(TNI)의 주요 직책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을 배치했고, 미디어 회사의 소유자들과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띠오 시깃 쁘라보워 경무관은 대통령 경호부대를 거쳐서 최근 경찰청 형사수사부 책임자로 임명됐다.

안디까 뻐르까사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 경호부대를 거쳐서 새로 신설된 TNI 사령관 직에 임명됐다.

조꼬위는 주요 미디어회사 소유주와 그 가족을 장관, 차관, 대통령자문 등에 임명했다.

에릭 또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PT Mahaka Media 사장으로, 이 회사는 이슬람 신문인 Republika, 지역 TV방송국 jakTV, 라디오방송국 GenFM을 소유하고 있다.

위스누따마 꾸수반디오 관광부 장관은 NET TV 공동설립자이고, 안젤리나 따누수딥요 관광부 차관은 미디어 재벌 MNC그룹 소유주 하리 따누수딥요의 딸이다.

조꼬위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정치비평가와 시민활동가들은 2기 임기 중 민주주의 원칙 수호에 관한 그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샤리프 히다야뚤라 국립이슬람대학교 소속 정치학자 부르하누딘 무따디는 "조꼬위는 1기 임기부터 민주주의 개혁보다는 경제 발전에 더 관심을 보였다"라고 최근 동아시아포럼 계절호 기고문에 썼다.

우스만 하밋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대표는 쁘라보워를 국방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치세력끼리 결탁하는 두정치의 부상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인도네시아는 군사 쿠데타나 시민봉기 같은 큰 소요 없이 선거를 치렀다.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없이 선출된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